



## ‘팽창지향’ 부추기는 언론사 대학평가

김수혁 기자 sherk@khu.ac.kr

언론사 대학평가의 평가방식과 기준에 대한 의혹과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그들이 제시하는 길이 대학을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 속이다. 매년 발표되는 언론사 대학평가는 이미 한국사회의 익숙한 풍경이다. ‘어느 대학이 뛰어나고 어느 대학이 부족한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순위로 제시하는 언론사 대학평가는 대학에게 외면할 수 없는 유혹으로, 구성원들에게는 자부심의 문제로, 수험생과 학부모에게는 입시를 위한 기본고려사항으로 받아들여진다.

중앙일보는 1994년 국내 언론사들 가운데 최초로 대학평가를 실시했다. 이어 2009년에는 조선일보가 영국의 대학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와 협력해 ‘아시아권 대학평가’를 시작했다. 2013년에는 동아일보 역시 후발주자로 나서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발행 부수를 자랑하는 세 개의 주요 신문사가 모두 대학평가를 시행 중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중앙일보 대학평가’는 여전히 가장 높은 인지도와 영향력을 자랑하고 있다.

‘중앙일보 대학평가’ 결과 기사의 첫머리에서는 “학생·학부모에게 생생한 대학 정보를, 대학사회에는 경쟁력 강화의 계기를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18년 평가에서는 ‘교육여건’, ‘교수연구’, ‘학생 교육 및 성과’, ‘평판도’ 네 개 부문과 각 부문에 속하는 총 32개의 하위지표를 기준으로 사용해 부문별 순위와 종합 순위를 산정하고 있다.

기획조정처 학술진흥팀 이준호 계장은 “학교 차원에서 국내외의 대학평가

결과를 관리하고 정책 운영의 중요한 지침들 가운데 하나로 참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계장은 “평가기관에서 결과 발표와 함께 상세한 평가 데이터를 학교에 제공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표에 따라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 협력해 개선이 필요한 영역의 정책을 개발,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언론사 대학평가가 대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2017년에는 ‘서울소재대학교 교수회연합회(서교련)’가 언론사 대학평가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교련은 언론사 대학평가가 대학을 학문연구와 교육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외면한 채 획일화된 기준에 따른 경쟁에 몰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에는 고려대 종학생회(총학)가 대학 서열화를 조장, 강화한다면 언론사 대학평가 거부를 선언했고 당시 우리학교 종학 또한 이에 동참하기도 했다.

한림대 윤훈일(언론정보학) 교수는 『관훈저널』에 게재한 「언론사 대학평가의 문제점」이라는 글에서 국내 언론사의 현행 대학평가를 비판한다. 윤 교수는 “연구논문 숫자나 연구비 수주액 등 연구의 양적 산출물에 초점을 맞추면서, 연구결과물이 기준 지식체계 확장에 얼마나 기여하고 지적 성장에 어떤 충격을 주었는가에 대해서는 무시한다”면서 “양적인 지표 위주로 대학을 경영할 때 대학 본연의 교육적 사명이 실현되고 연구능력이 향상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교련 이사장이기도 한 이성근(관광대학원 부동산학) 교수는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결국 언론사가 대학을 평가하

2018 중앙일보 대학평가 지표	
교육여건(100)	교수연구(100)
△교수 확보율(13)	△교수당 교외연구비(15)
△등록금 대비 장학금(15)	△교수당 자체 연구비(10)
△강의 규모(5)	△국제논문당 피인용(20)
△등록금 대비 교육비(10)	△국제논문 게재(10)
△새입 대비 기부금(5)	△국내논문당 피인용(10)
△기숙사 수용률(8)	△국내논문 게재(5)
△학생당 도서자료 구입비(7)	△저역서 피인용(5)
△외부 경력 교원 비율(5)	△저역서 발간(5)
△외국인 교수 비율(5)	△교수당 기술이전수익(10)
△외국인 학생 비율(10)	△교수당 산학협력 수익(10)
△외국인 학생의 다양성(7)	
△교환학생 비율(10)	
학생교육 및 성과(70)	
△순수 취업률(15)	△신입사원으로 뽑고 싶은 대학(10)
△유지 취업률(15)	△입학 추천 대학(10)
△중도 포기율(10)	△발전 가능성 있는 대학(6)
△졸업생 창업활동(10)	△국가지역사회 기여가 큰 대학(5)
△창업교육 참여율(10)	
△현장실습 참여율(10)	

“양적인 지표 위주로  
대학을 경영할 때  
대학 본연의 사명이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다”

고 순위를 매기는 상황 자체에 대한 것이다”라면서 “물론 언론인들이 대학 교육에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대학 교육이라는 문제에 있어 비전문가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 교수는 “대학별로 사정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른데도 이와는 무관하게 획일화된 기준, 그것도 전문성과 타당성이 의심스러운 지표들로 이뤄진 기준으로 대학을 줄 세우기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대학들은 언론사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꺼려 오히려 평가 결과에 행정적인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학교는 지난해 발표된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종합 순위 6위를 차지했다. 1994년 첫 번째 평가에서 10위에 선정된 이후 역대 최고 순위였을 뿐만 아

육연구성과’ 부문에 포함해 발표하는 ‘졸업생 (대학원) 진학현황’이나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같은 지표들은 배제돼 있다.

유학생 관련 지표로는 ‘교육여건’ 부문 하의 ‘(학위과정) 외국인 학생 비율’, ‘외국인 학생의 다양성 지수’, ‘교환학생 비율’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지표들이 상승했다고 해서 우리학교가 더 ‘국제화’ 됐다거나 유학생 교육환경이 나아졌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유학생들의 학업에 있어 수치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을 뿐더러 정량화해 나타낼 수 있는 유학생의 언어능력 총족학생비율, 중도탈락율 등의 지표는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 알리미 공시에 따르면 우리학교는 2018년에 전년과 비교했을 때 소폭이긴 하지만 언어능력 총족학생비율은 줄고 중도탈락율은 늘었다.

학술진흥팀 이 계장은 “대학사회 내외에 언론사 대학평가와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대학 당국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있음을 알고 있다”면서도 “올해는 어떤 대학평가에서 어느 대학이 몇 위를 했는지가 사회적으로 지대한 관심을 끄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만일 순위가 전년에 비해 떨어지면 학교 안팎으로 비난과 추궁이 쏟아지는데 그런 목소리들도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필요악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언론사 대학평가에 대한 큰 관심이 대학의 변화를 주동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성근 교수는 “현재와 같은 정량적 기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결국은 언론사가 내세우는 대학 간의 경쟁이라는 것도 제시된 지표에 따라 점수를 올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몰두하는 양상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어떤 평가에서 우리학교의 순위가 크게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양적 평가에 의존한 결과라면 그 상승이 정말 대학과 그 구성원들을 위해 건전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